

해탈의 길 다양한 비유로 설명

청정도론 <상>

우리는 보통 인도에서 북방(중국쪽)으로 전수된 한역 경전에 의해서 많은 불전을 접하고 있지만 부처님 말씀은 인도에서 남방(세일론)으로 전수된 팔리어로 된 불전도 있다. 한역 대장경과 마찬가지로 팔리어 불전에도 경(經) 율(律) 논(論)의 삼장 그리고 주석서가 방대한 규모로 남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논서로 꼽히는 것이 붓다고사(Buddhaghosa 佛敎)의 <청정도론(淸淨道論 Visuddhimagga)>이다.

붓다고사는 원래는 남인도 출신이었다고 하나 5세기 중엽에 세일론으로 건너가 마하비하라에 거주하면서 대사(大士)의 전승에 의거하여 <청정도론>을 지었다고 한다. 청정도론(淸淨道論)은 남방상좌부의 교리를 상세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설명한 대표적인 논서로 인정 받고 있으며 대부분의 상좌부의 교학은 이 붓다고사의 해석이 현대에 이르기까지 표준이 되고 있다.

붓다고사는 그 이전에 있었던 <해탈도론(解脫道論 Vimutti-magga)>를 저본(底本)으로 하고 당시에 싱하리저어(세일론어)에 의해 쓰여진 경·율·론 삼장의 여러 요소(義疏)를 참조하여 <청정도론>을 저술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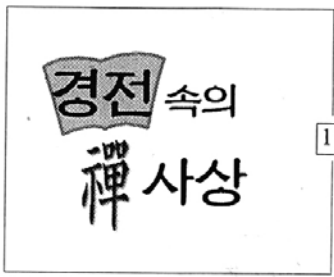
<청정도론>은 전체가 28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계·정·혜 삼학의 분류에 의거해 조직되어 있다. 전체적인 구성은 총 23장으로 되어 있으며 제1장과 2장에서는 계율과

글쓴이



강명희 <대림대 강사>

두타행(頭陀行)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결국 선정에 들어가 기 전에 청정한 지계의 정신과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버린 심신의 수련을 선결과제로 삼았던 것이다. 제2장부터 13장까지는 선정의 의미와 다양한 선정의 방법 그리고 선정수행의 결



숨쉬기에 집중 의식주 집착타파 '7가지 청정' 실천 단계는 선수행 체계

과에서 얻어지는 공덕에 대해 해설하고 있다. 특히 선정이나 삼매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정수행의 방법들은 현재에도 세일론과 미얀마에서 수행과정의 지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제14장부터 23장까지는 지혜의 정, 지혜의 수행방법, 지혜의 수행공덕에 대하여 해설하고 있다.

또한 <청정도론>은 구경의 청정한 열반에 이르는 과정으로서 '일곱 가지 청정'을 실천의 단계로서 살하고 있다. '일곱 가지 청정'이란 계청정(戒淸淨), 심청정(心淸

淨), 견청정(見淸淨), 도의청정(度疑淸淨), 도비도지견청정(道非道智見淸淨), 행도지견청정(行道智見淸淨), 지견청정(智見淸淨) 등이다. 이중 계청정은 계학, 심청정은 정학, 나머지 다섯 가지 청정은 혜학에 해당된다. 일곱 가지 청정의 분류에서 청정도론을 보면 혜학이 다른 부분보다 중점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며 선정의 체계와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고 있다.

특히 정신집중을 의미하는 염(念) 또는 수념(隨念)이라 하는 수행도는 기본적으로 정수습(定修習)과 관수습(觀修習)을 기초

로 하고 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정(定)이라 하는 일정한 마음의 유지와 관(觀)이라 하는 올바른 지혜가 함께 하고 있는 것이다. 염(念)은 오근(五根)과 오력(五力; 信·精進·念·定·慧) 중에서 정과 혜의 진(眞) 가운데 위치하고 정과 혜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정신집중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수념(隨念)이라 하는데, 수념(樹念)의 수습 가운데 6수념과 적지수념(寂止隨念)에 의해서는 근행정(近行定) 밖에 얻을 수 없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머리, 손, 발 등 여러 가지 색(色)으로 이루어진 물에 정신을 집중하는 신지념(身至念)에 의해서는 초선(初禪)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숨의 출입에 정신집중하는 출입식념(出入息念)에 의해서는 4선(四禪)을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청정도론>에서는 들어주고 내주는 숨의 출입에 의식을 집중함으로써 초기 불교에 있어서 최고의 선정 상태라고 하는 4선에 도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또한 <청정도론>에서는 수행도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즉 4선(四禪)은 4역처의 수습에 의해서 도달할 수 있으며, 출입식념은 4역처를 완전 성취하는 것이며, 4역처는 7각지(七覺支)를 완전 성취하는 것이며, 7각지에 의해서 명(明)과 해탈을 얻을 수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 <청정도론>의 특징은 수행의 다양한 방법과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을 표현하고 있으면서도 다양한 비유와 인연담을 들고 있다는 것이다.

과학산책

감정 표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자신의 감정을 걸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때가 있다. 남을 속이는 행위가 때로는 필요하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런 행동에 익숙하지 않으므로 실패하기 쉽다. 감정을 즉시 표현하는 신체의 변화를 남이 느끼지 못하도록 의식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체 부위에 따라 이러한 지배가 쉬운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이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신체 중 어떤 부위가 가장 지배하기 쉬운 곳일까? 일반적으로 얼굴이라고 알려져 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얼굴은 사람들이 늘 보아오던 곳이기에 잘 알고 있어서 의도적인 표정 관리가 쉽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미국에서 젊은 간호사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간호사는 직업의 특성상 환자들에게 때로는 선의의 거짓말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직업상 거짓말이 필요한 사람이다. 실험에 앞서 거짓말을 하는 것이 간호사로서 성공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이야기를 들은 간호사들은 그들이 하는 거짓

말을 숨기려고 무척 열심히였다. 간호사에게 두 가지 장면을 보여 주었다. 하나는 매우 역겨운 수술 장면이고 다른 하나는 반대로 즐거운 장면의 영화였다. 자신이 본 장면을 때로는 그대로, 때로는 정반대로 이야기하라고 하고는 그 사람의 표정과 동작을 촬영하여 분석했다.

언뜻 보기에는 거짓말을 할 때

의 신체적 표현과 이를 지켜보다가 통제하려하는 뇌의 지시와의 속도 차이를 미묘한 표정이 나타낸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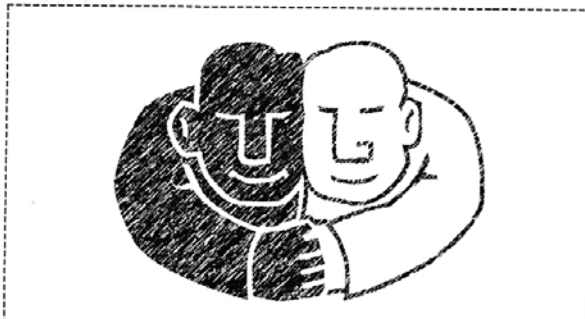
사람들은 인종에 대해 실제로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사람들의 솔직한 감정을 무척이나 알고 싶어 하지만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감정을 드러내려 하지 않는다. 자신의 실제 감

신체동작과 뇌의 통제 시차 있어 솔직한 감정 드러내지 않아도 무의식적 근육반응으로 알 수 있어

의 표정은 진실한 말을 할 때의 표정과 거의 구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짧은 순간의 얼굴 변화에 익숙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은 진실을 누설하는 미묘한 표정을 알아차릴 수 있었다고 한다. 이 미묘한 표정은 표현을 억제하려는 뇌의 지시보다 감정의 표현이 너무나 빨리 얼굴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감정

은 어찌 되었건 이를 표현하게 되면 도덕적으로 비난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문제를 푸는 한가지 방법이 제안되었다. 실험자들에게 해 속을 수도 있는 가능성을 가진 이 방법은 작지만 뚜렷이 드러나는 얼굴 근육 운동을 관찰하는 것이다. 예로 대학의 심리학과 교환 교수인 에릭 벤만(Eric Varman)과



남자세대 동료들은 일단의 대학생들의 얼굴 근육 움직임을 분석하여 다른 인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을 품고 있는지를 결정하고자 했다. 물론 실험 대상자들은 인종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다. 이 결과들은 1997년 11월 개성과 사회심리학회(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에 발표되었다.

벤만의 팀은 89명의 백인 남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했다. 3개의 실험에서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의 이마와 뺨 사이에 두 가닥의 전기봉을 당겨서 살짝 웃거나 눈살 찌푸림과 같은 섬세한 변화를 측정하고자 했다. 그런 다음 흑인과 백인이 같이 있는 사진을 보여주

고 그림속의 흑인과 같이 일하는 것을 상상하도록 했다. 인터뷰를 했을 때는 대부분의 참가자들은 흑인에 대한 인종적 편견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벤만은 이 실험 그룹의 55퍼센트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을 감추려 했다고 결론지었다. 이런 무의식적인 근육 반응에 대한 해석이 논리의 여지가 있지만 어째서 인종에 대한 감정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은 확실한 것 같다.

감정 표현을 지켜보는 눈과 감정 표현을 즉각적으로 하는 눈은 누구인가? 통제할 필요없이 지켜보는 눈과 표현하는 눈이 본래 하나고 그 자리로 돌아가 하나가 되어 자유롭고 여유롭게 사는 도리는 없을까?

조원희(본사 전략정보실장)

에드워드 콘즈의 지혜의 길

10

정진

"불건전한 수준에서는 탐욕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건전한 상태에서는 신심이 불쾌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탐욕이 감각적 욕망의 대상을 찾는 것처럼 신심은 도덕의 미덕을 찾는다. 탐욕이 해로운 것을 놓치지 않는 것처럼 신심은 이로운 것을 놓치지 않는다."

우리의 현실사회는 전통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경향이 있다. 지성적인 영리함을 장려하는 현대사회에서 신심은 우둔한 머리와 지성적인 완전함이 고립된 것처럼 보인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세계의 고요함에 도달하기가 극히 어려운 정도로 현대사회는 감각적 세계에서 파생되는 혼란을 증대시킨다. 동시에 사람들에게는 수많은 모순되는 관점들이 드러나, 과학이 특권을 갖게 되고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직관이 사라지고 치명상을 입게 된다.

정진이란 우리의 수련을 강화하고, 신심을 증진하는 행위다. 이성을 신념을 토로한다고 해서 증진되는 것이 아니다. 정진을 지속한다는 것은 불가피한 의심들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성격의 문제다.

부처님이 가르친 업과 윤회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깊은 인상을 받은 반면 다른 사람들은 매우 하찮은 것으로 여긴다. 이러한 것들은 과학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물론 불교에서는 그 교리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감각세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연결하는 자연적인 인과관계의 배후에는 선한 행위는 보상이 받고 악한 행위는 벌을 받는다는 것을 보장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하나의 도덕적인 인과관계가 있으며, 이 도덕적인 인과의 교리는 죽음에 의해서 끝나지 않고 다른 생으로 계속된다고 주장한다.

이 두 가지의 가정들이 그럴듯하든지 아니든지 그것들은 자기자신과 남들의 전생들을 기억하는 신통력을 얻은 사람

굳은 신심으로 수행하라

윤회·인과 등 교리에 대한 의심

논증 아닌 자기 순화로 풀어야

만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문제다. 신통력이 없는 우리로서는 윤회가 사실임을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만일 윤회를 믿는다면 대부분 신심으로써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업과 윤회의 가르침은 논증에 의해서 유지되기보다는 위엄을 무릅쓰는 대담하고 용기있는 기거움에 의해서 유지된다. 재물을 축적하는 일에 종사하는 상인은 그의 재산을 걸어야 한다. 생명을 지키는 일에 종사하는 군인은 지견의 생각을 걸어야 한다.

삶은 어디에서도 완전한 안전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우리의 믿음은 점점 무릎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들을 받아들여야 하며 우리의 대담함과 훌륭한 유머가 사라지지 않기를 희망해야 한다.

정진의 과정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지적인 의심들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나선 선택의 기로에 서게된다. 가르침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비난하거나 혹은 그들 자신의 지적이거나 도덕적인 불완전과 진리의와의 사이에서 오는 거리감을 비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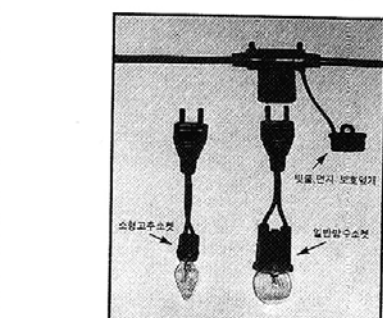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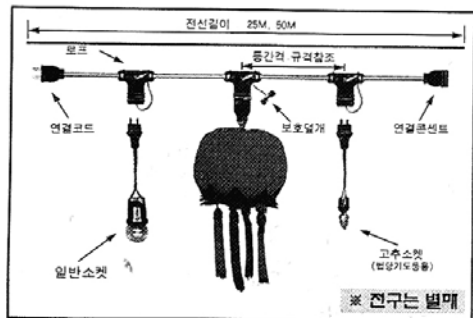
만일 단 한달간의 어느 하루의 매시간 생길 일을 기억조차 하지 못한다면 어찌 그의 정성들을 기어기기를 바라겠는가. 의심들은 논증에 의해서 풀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지혜를 갖춘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자신을 순화시킴으로써 의심이 풀리는 것이다.

균형을이룬 신심은 본질적으로 불교의 덕이다. 지혜로 단련되지 않는 지나친 신심은 단순한 맹신으로 흘러가기 쉽다.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지혜를 향한 정진 뿐이다.

번역: 오종욱 기자(gobaou@buddhapi.com)

불자기업에서 제작되는 봉축연등, 사찰·법당기도용 T형 플러그식 안전 배선

(봉축연등·사찰·포교원 법당 기도등, 각종 연등전선 제조·납품)



규격

- 등간격 : 30cm, 50cm
1M, 2M, 3M, 5M 기타 주문제작
- 모 델 : DW-101(2mm) DW-202(2mm)
DW-305(3.5mm)

※ 미리 주문하시면 편리합니다.

특징 및 효과

- 소켓이 분리되기 때문에 설치, 수거, 보관이 매우 편리합니다.
- 조명이 필요한 곳에만 쓸 수 있어 효율적입니다.
- 소켓이 파손되어도 교환이 가능해 반영구적입니다.
- 일반 전구소켓은 물론 소형 고주소켓도 생산하므로 병행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원기업 代表 吳大權(光明) 合掌

본사영업부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96번지
TEL : (032)582-6235-6 FAX : (032)571-9470
A/S : (032)583-40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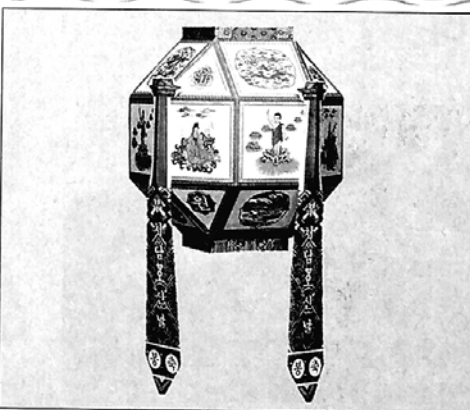
서울영업소 : 서울시 중구 수표동 56-6 (대한지공빌딩 222호)
TEL : (02)2276-0235
H.P : 019-262-9830 · 017-259-4471

부산·김해대리점
경남 김해시 구산동 302-7
TEL : (0525)322-3929 휴대폰 : 011-833-8018

영·호남지사
경남 진주시 칠합동 496-5(조일B/D 3층)
TEL : (0591)757-6411, 757-3331
FAX : (0591)757-3626 휴대폰 : 011-869-4854

우리불교 전래의 조립식 팔각등

가격을 동결 하였습니다.



가격 동결 단행!!

- 어려운 사찰 경계에 외국산 등 수입을 막고 국산품을 애용하려는 운동에 동참하기 위해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조립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처음 사용하는 사찰을 위해 조립과정이 녹화되어 있는 15분용 비디오 테이프를 드립니다. — 불교 TV 제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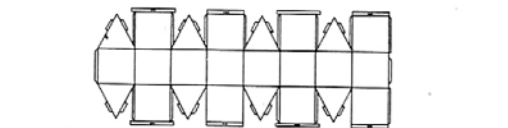


◆ 초벌용(8Cm, 10Cm) ◆ 초벌용위에 연임을 붙인 상태 ◆ 연등완성품
문의 하실 곳 : (02)2277-1548 H:(016)552-9360

이제 연등에 번잡한 풀칠이 필요없습니다!!

조립식 팔각등

- ★ 제작이 간편한 등
종래의 철골 구조에 난장으로 풀칠이 하던 등 제작이 「한번의 공정으로 아름답고 멋스러운 등」이 3분내에 완성.
- ★ 형형색색의 문양과 마감
고려시대 연등회, 팔만회의 고승을 토대로 「형형색색의 단정 문양과 현대적 감각의 색상을 조화」하여 봉축의 의미와 중생의 불심이 더욱 고취될 수 있도록 디자인.
- ★ 야외장엄용
「특수 이중 합지방식에 코팅 처리」를 하여 이슬에 젖지 않음은 물론 견고성을 지니고 있어 「행사 수일 전부터 사찰의 축제분위기를 장엄」에 활용.
- ★ 운반 및 보관 용이
「운반 및 보관이 편리」하도록 고안.
- ★ 경제적인 가격
종래의 복잡 다단화된 유통 구조적 가격을 배제한 「사찰을 위한 경제적 가격」
- ◆ 펼친 상태(골조 및 인쇄결지 합지 방식)



◆ 단 한번의 공정으로 3분내 완성
현우기획